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일정 2주 연기

채권단, STX 중도하차에 경쟁구도 전환 위해 ... 매각도 2012년으로

채권단이 하이닉스 매각일정을 2주 늦추기로 했다.

STX가 중도에 입찰을 포기하자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9월27일 주식관리협의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열어 10월 초 SK텔레콤에 입찰안내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곳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신규 입찰자에 최대 1개월의 예비실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10월24일로 예정됐던 본입찰은 11월3일로 약 2주 연기된다.

2011년 목표였던 매각 완료 예상시점도 2012년 1월로 늦추어진다.

하이닉스 매각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주 발행 및 구주 매각 비율이 14대6로 진행되는데, 신주발행 가격은 입찰가격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하이닉스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주가 중 이사회가 최종 결의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주당 발행가격이 주당 입찰가격보다 높으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할 신주에 대한 인수대금이 신주 입찰금액을 밑돌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할 신주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입찰일과 신주발행 결의일까지 시차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주 발행가격이 신주 입찰가격보다 20% 이상 초과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을 철회할 수 있는 워크어웨이(Walk Away) 옵션도 부여하기로 했다.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 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신주발행 결의를 해줄 것을 하이닉스 이사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8>